

(Robert Vannoy) , 대선지자, 강의 4

이사야 2:1-4:6 살펴보기

검토

우리는 이사야서 초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 1-6은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에 잘 알려진 축복의 구절인 2장 1-4절을 중심으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때의 미래의 축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섹션인 2:6에서 4:6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심판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속해서 그 부분 끝에 나오는 4:2-6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사야 2:5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권면인 2:5 이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축복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섹션이 시작됩니다. 2장 5절을 보십시오. “오라 야곱의 집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2장 1~4절에 언급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2장 5절 이후에 이사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죄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2장의 5와 6 사이에는 실질적인 구분점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절 구분보다 더 나은 장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생각의 주요 변화가 2:5와 2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6 비난과 심판의 긴 통로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2:8 비난과 보편적 심판 8 절 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땅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합니다.” 10 절부터 21절까지는 심판의 때를 묘사한 것입니다. 10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정말 세상 심판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입니다. 단지 지역적으로 즉각적인 심판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이사야가 여기서 한 일은 그의 책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 종종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 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24-27장에서 이 다가오는 세계 심판을 여기서보다 훨씬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것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땅에 숨어 여호와를 두려워함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하라.” 1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를 위하여 날을 예비하셨으니 무릇

높아지는 자와 그들이 낮아지는 것이니라” . 17절: “사람의 교만이 낮아지고 사람의 교만이 낮아지며 그 날에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이돌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땅을 진동시키기 위해 일어나시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하여 바위 굴과 땅굴로 도망할 것입니다.” 같은 문구가 21장 끝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하실 때에 그를 두려워하심과 그 위엄의 영광이로다.” 따라서 2:10부터 21까지는 우주적 범위의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24-27장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이사야 2:22-3:15 당면한 상황: 무책임한 지도자의 행동 그러나 22절에 이르면 이사야가 당면한 상황으로 더 돌아간 것 같습니다. 2:22부터 3:15까지, 당면한 상황에서 대부분 무책임한 리더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책임한 지도자의 행동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심판은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의심할 바 없이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먼 미래의 보편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다 즉각적이고 지역적인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 구절을 한 구절씩 살펴보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은 “코에 호흡밖에 없는 사람을 믿지 말라. 그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그런 사람입니까?”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과 용사, 재판관과 선지자,

점쟁이와 장로, 오십부장, 귀족, 모사, 숙련된 장인과 영리한 마술사. 나는 소년들을 그들의 관리로 삼을 것이다. 단순한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이웃이 이웃을 대적하여 서로를 억압할 것입니다.” 3장 1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 “젊은이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느니라. 오 내 백성아, 너의 인도자들이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법정에 서시니라” (14절).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이 너희 집에 있느니라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죄의 일반적인 초점은 그 땅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3:16-4:1

시온의 딸들을 비난합니다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3장 끝 부분에서는 불행하게도 장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중단은 3장 26절이 아니라 4장 1절 이후입니다. . 그러나 3:16부터 4:1까지 이사야는 그곳에 있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 여자들을 교만, 오만, 물질주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비난합니다. 우리는 지난 분기에 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여성들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여자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으로 다니고 눈을 희롱하며 다급한 발걸음으로 넘어지며 발목에서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 여자들의 머리에

종기가 걸리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두피를 대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에는 풍요와 화려함이 대조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옷 곧 팔찌와 머리띠와 초승달 목걸이와 귀고리와 손목고리와 베일과 머리 장식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유병과 부적과 인장 반지와 코고리와 겹옷을 빼앗으시리라 , 망토와 망토와 지갑과 거울과 아마포 옷과 왕관과 솔이나라. 향기 대신에 악취가 있을 것입니다. 새시 대신 밧줄; 머리를 잘 차려입는 대신 대머리가 됩니다. 좋은 옷 대신에 베옷을 입으십시오. 아름다움 대신 브랜딩. 너희 남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너희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애통하고 애통할 것이다. 궁핍하면 땅바닥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4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의 옷을 우리가 입겠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의 치욕을 없애주소서!’” 그래서 진짜 한계점은 4:1 이후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예루살렘 여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이 심판에 관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2:6에서 4:1로 진행됩니다.

이사야 4:2-6 미래의 축복 그런 다음 4:2에서 시작되는 미래의 축복에 대한 두 번째 간단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의 첫 번째 부분은 4장 2-6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생존한 자들의 자랑과 영광이 되리라.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 중에 기록된 자는 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서는 시온 여자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심판의 영광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온 시온 산 위에와 거기 모인 자들 위에 낮에는 연기 구름, 밤에는 불꽃을 창조하실 것이며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있을 것이다. 그곳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는 피난처와 그늘이 될 것이며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것이다.” 참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날” 이 구절 이 “그 날에” 라는 문구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날”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18, 4:1, 그리고 4:2에서 같은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8절로 돌아가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옷을 빼앗으시리라” 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날에는 시온의 여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리라” 는 말씀도 심판날을 가리킨다.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언급 모두 같은 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3:18과 4:1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멸망과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2과 그 다음 내용은 더 먼 미래의 때, 즉 축복의 때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해석자들은 “그 날에” 라는 문구를 항상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주의 날” 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종종 “주의 날” 은 항상 종말론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용법을 살펴보면 그것이 항상 종말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갈그미스 전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사용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곧 진노와 맹렬히 노하는 잔혹한 날이로다.” 그 문맥은 바벨론성에 대한 심판이다. 메대인들이 바벨론을 쳐부수게 될 것입니다. 13장 17절에는 “은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총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때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며, “그 날” 도 항상 종말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날” 같은 표현을 기술적인 용어로 만들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단어와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내가 말하려는 날을 단순히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내가

말하려는 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축복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됩니까?

이사야서 2장 1-4절과 미가서 4장 2-6절을 구별하기 전에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전 구절과 관련하여 이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석자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4장에는 2장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2장 1-4절에 있는 이 짧은 축복 부분에 있습니다. 4장 2-6절을 읽어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톤이 다릅니다. 정신이 다릅니다. 2:2-4 그리고 그것의 더 큰 문맥은 미가와 유사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온에서 나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이 제거되는 평화롭고 외적인 안전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2장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4장에서는 일반적인 어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온 시온 산과 거기 모인 자들 위에 낮에는 연기 구름을 만들고 밤에는 불꽃을 일으키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있을

것이다. 그곳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는 피난처와 그늘이 될 것이며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비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4장 5절과 6절에서 여전히 방어가 필요한 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폭풍과 비로부터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5절과 6절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광야 방향은 어려움과 위험의 시기였습니다. 5절과 6절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순례 여행의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4장은 2장의 천년왕국의 평화와 안전과는 사뭇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역경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천년왕국이 아니라면, 앞서 사용된 용어인 여기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 “시온에 남은 자들 곧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 살아 있는 자 중에 기록된 자는 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예루살렘과 시온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저는 단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역사의 모든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한 그림이라는 제안으로 던지겠습니다.

이사야 4:2 주님의 가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 전에, 돌아가서 해당 부분의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그 날에” 라는 표현 뒤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의 자랑과 영광이 되리라. ” 문제는 “주의 가지” 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즉각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와 병행하여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생존한 자에게 자랑과 영광이 되리라” 는 말입니다. 이제 그 문구와 병행되는 “주의 가지” 와 “땅의 열매” 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첫째, 두 문구 모두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비유적인 구절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과수원과 채소밭은 이스라엘에서 안전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지, 과수원, 땅의 열매, 채소밭, 농산물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생존한 자의 자랑과 영광이

되리라” 그러므로 과수원과 채소밭은 이스라엘에서 안전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J. Barton Payne의 첫 번째 단락에서 페이지 상단의 10페이지 인용 모음을 살펴보세요. 이사야 4장 2절과 다른 여러 곳에서 이사야 4장 2절에서 이사야는 “그 날에” -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서 -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땅의 소산이 아름다울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지는 11:1에서와 같이 메시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 39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줄의 평행법은 문자 그대로 농업의 증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페인은 농업 증가에 관해 말하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문구를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적인 언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구인 “땅의 열매”는 문자 그대로 농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둘로 나뉩니다. 이 접근법은 “주의 가지”가 상징적인 메시아적 언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열매”에 관한 두 번째 문구는 문자 그대로 농업 생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두 문구를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적인 언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가지”, “땅의 열매”는 모두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문자 그대로의 표현 에서 벗어나 이 마지막 두 가지 제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문맥상 단순히 농업에 대한 언급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묘사된 축복은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번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위험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사실은 “주의 가지”라는 문구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맥의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성구 목록을 보면 흠정역 성경에서 영어 단어 “branch” 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18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어로 “branch” 를 읽을 때 항상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읽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용어 *분기 뒤에는* 18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은 *삼막(samak) 이다* . 나는 그것이 이사야 11:1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네쳐(netzer) 이다* .

이사야 11장 1절은 매우 친숙한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이사야 11장 1절에서 당신은 주님의 영이 임할 개인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 개인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올 가지”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계속 진행하면 이 분이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실 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메시아적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장 2절에 사용된 단어는 ‘삼막(*samak*)’인데, 이는 명백히 메시아에 관한 여러 다른 구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3:5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날이 이르리라” ;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메시아적입니다. 다음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이로다. 그의 시대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다윗 계열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예레미야 23:5, 예레미야 33:15, 스가랴 3:8과 6:1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곳에서는 그 단어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다윗 가계의 왕인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인 성경을 비교할 때, 당신이 작업하고 있는 구절에 대해 다른 구절들이 어떤 빛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십시오 . 그리고 성경을 비교할 때, 나는 이 구절들이 이 문구를 메시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이사야의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이미

메시아적 의미로 사용된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을 메시아적 언급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문구가 가지와 평행하기 때문에 메시아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구는 다른 메시아적 맥락에서 “땅의 열매” 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병렬성을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평행법은 히브리어에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평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은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세 번째 해석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즉 이 구절의 두 부분을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측면을 여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가지” 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반면, “땅의 열매” 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암시합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아를 삼위일체의 제2위로 식별하는 신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보 제공용 계산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씨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며 땅의 소산이시지만 동시에 주님의 가지이시며 신이시며 삼위일체의 제2위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두 본성에 대한 개념이 신약성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더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확실히 우리가 이사야가 신약에서 전개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후기 성경 계시를 이해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자신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더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 현실에 부합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내 생각에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석학의 쟁점이자 논의의 핵심입니다. 어떤 성경 본문의 유일한 정당한 의미는 저자가 그것을 말할 때 완전히 이해했던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입니다. 나는 그의 목적이 의미가 불확실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성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선지자가 성령의 기능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땅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생존한 자에게 영광과 영광이 되리라” 나는 앞서 주님의 가지가 상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농업 단체를

취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비유적으로 참조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The Branch”를 선택합니까? 그 용어가 사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구절에서는 그것이 메시아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가지”가 비유라면 왜 평행법 때문에 “땅의 소산”이 아닌가? 평행법을 깨기 위해 당신은 히브리어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농업적인 것이라면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지”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둘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덜 확신할 것입니다 - 가능하지만 그것은 너무 멀리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확실히 합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말론에서는 구별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명확합니다. 나는 일반적이고 명확한 것에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광범위한 연대기에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련의 사건이 일어날지, 천년왕국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다시 오실지 중간에 오실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면 환난 중이나 환난 후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으면

토론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천년왕국에는 7년 환난 기간보다 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해석자들이 그것이 종말론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것보다 덜 명확할 것입니다. 저는 2장에서 살펴본 것과 대조되는 것 같아서 비유적으로는 현재를 말하고 있고, 이 구절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비유적인 언어에 들어가면 통역사가 문맥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려면 증거를 저울질해야 하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물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손뼉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비유적인 것임을 인정합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비유적인 것에서 덜 명확하게 비유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연속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유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분명히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기 우리는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라고 말하고 다음 사람은 “아니요, 비유적인 것 같아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쪽도 독단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종류의 해석상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문자 그대로,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시온 =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에 대해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 나는 이 구절의 일반적인 취지는 하나님께서 순례 여행에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앞서 그것이 “예루살렘” 과 “시온”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들 곧 그 안에 남아 있는 자들” 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 중에 기록된 자는 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잠깐만요. “시온” 과 “예루살렘” 이 그 도시의 문자적인 주민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비유적,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 입니까 ? 일반적으로 신? 그 원리는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이 교회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천년왕국 해석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은 교회의 상징이 되고, “예루살렘” 과 “시온” 은 교회의 상징, 형상이 됩니다. 나는 구약의 관계,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문제를 다루지 않고도 이미 구약에서 '예루살렘' 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관한 시편 87:4-6 이미 구약에서 “시온” 이나 “예루살렘” 이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갖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시편 87:4-6입니다. 시편 87편은 짧은

시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산에 그 기초를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느니라.”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일들이 말해지고 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들 중에 기록하리라 블레셋과 두로 와 구스도 기록하고 이르기를 이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시온에서 났느니라 하리라 과연 시온에 대하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것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민족 명부에 '이 사람은 시온에서 태어났다' 고 기록하실 것이다. 그들은 음악을 만들면서 '나의 모든 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J. Barton Payne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온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편 87:4, 5, “이 사람이 그에게서 났으니”, “이 이방 민족들이여.” 그는 그것을 야훼의 도덕적, 종교적 채택을 언급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생 동안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 중에 기록된 자는 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 (이사야 4:3). 여호와께서는 민족들을 등록하십니다. 시편 87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 명부에 기록하시리이다.” 그러므로 그가 영적으로 시온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귀하가 인용한 페이지 10의 세 번째 문단, 성경의 존더반 그림 백과사전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페인의 기사 아래 세 번째 문단에서 , “ 시온에서 태어난’ 이라는 문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구원을 나타낸다면, 시편 기자가 또한 다음과 같이 나열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 , 에티오피아를 ’그들 중에서 나를 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원주민들의 확신을 묘사한 후에, ’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호부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고 기록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시편 87:6). Craigie 가 요약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야훼의 백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투적인 교회에 대한 언급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며 우리 어머니라는 신약의 언급과 함께 신약의 용법이 나옵니다(갈라디아서 4:26). 또는 너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렀음을 설명할 때 승리하는 교회를 언급하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약 자체에서 “시온” 과 “예루살렘”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87편은 그에 대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사야 4:2-4 메시아의 축복 그러나 여기 이사야 4장 2절에서 그 의미를 취한다면, 당신은 메시아와 그가 그의 백성에게 가져오는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 가운데 기록된 자 곧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로다. 메시아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3절은 축복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4절에 이르면 3절의 약속의 이전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영광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더러움을 씻어낼 것이다.

나는 여기서 육체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의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것이요, 겉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는 더러움을 씻어내고 핏자국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씻겨져야 할 피흘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씻겨 나갈 것인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로 . 그는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심판의 영광 불의 영으로 피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전에 보석과 아름다운 의복 등의 장식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예루살렘 여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식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와 함께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생존자들의 자랑과 영광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죄책과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

이사야 4:5-6 하나님의 보호 그런 다음 5절과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제공하실 보호와 덮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 산 위에, 거기 모인 자들 위에 구름을 창조하실 것이라. 낮에는 연기가 나고 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라는 말은 그가 자기 백성 앞에 나아갈 때 광야를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언어와 그런 종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더위에도 피난처와 그늘이 있을 것이며 폭풍우와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43장의 처음 몇 구절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비유가 다릅니다. 이사야 43장은 아름다운 구절이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즉, 우리 주변에는 상처를 주고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 중 일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물이 우리를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불이 우리를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용문 10페이지, 페이지 하단은 EJ Young, 1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거짓 영광과 장식 대신에, 2:5-4:1, “참되고 참된 영광과 장식, 즉 주님 자기가 나타나리라” 이사야 4장 2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가지입니다. 이는 이사야 28장 5 절의 방정식으로 증명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소산”이라는 문구가 메시아를 언급할 때만 뒤따르는 내용과 만족스러운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에서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사야가 땅의 생산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면 그 땅을 다시 소개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즉시 중단됩니다. 사실 뜬금없는 생각이고, 도입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반면에 그것이 메시아에 관해 말하는 것이라면 그분은 일반적인 진술을 하신 것이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 구절에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밀레니얼로서 이 구조 2:1-4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사야 4장 2-6절을 하나님께서 현재 또는 모든 시대,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자신의 참된 백성을 보호하시는 비유적인 묘사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인 자들을 주님께서 그의 아들의 사역을 통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말씀하시네” 여러분 대부분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말씀하시네” 라는 찬송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시온 성이여 네게 영광이 말되었나니 그 말씀은 폐할 수 없는 이가 너를 자기 거처로 삼으셨도다. 만세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으니 무엇이 네 평안을 흔들 수 있겠느냐? 구원의 벽이 둘러싸여 있으면 모든 적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에서 바로 가져온 두 번째 절: “각 처소 주위에 떠돌고 구름과 불이 나타나 영광과 덮음이 되느니라”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심을 나타내느니라... 시온은 구속주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의지하는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느니라.” 마지막 스탠자. “구주여, 내가 시온 성에 속하였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가 되었나이다.” 이 찬송가의 저자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십시오. “내가 은혜로 시온 성의 일원이 되었을지라도 세상이 비웃거나 불쌍히 여길지라도 나는 주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세상 사람의 즐거움은 퇴색이며 그가 자랑하는 모든 화려함과 과시입니다. 확고한 기쁨과 영원한 보물은 시온의 자녀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존 뉴턴이 작곡하고 하이든이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은 훌륭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부를 때, 이 구절과의 가사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에는 그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찬송가 저자는 이것을 시온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것을 언급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사야서 4장 1-6절을 천년왕국시대(?) 또는 순례여행의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한다 . 지금 우리가 찬송가 작자에게서 주석을 얻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2장과 2장에 묘사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른 곳에서는 위험이 제거되었고, 사탄이 결박되어 있으며, 두렵게 할 것도, 위협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위협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다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멀리 추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탄이 결박된다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기간에는 사람을 두렵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그가 풀려날 때 다시 그의 군대에 합류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반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합니까? 미가서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리라.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는

이사야서 4장 6절의 “한낮의 더위를 피하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 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단지 위험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두려울 것이 없을 때와 폭풍우가 치는 때의 환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차이를 얼마나 멀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도의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바 없이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말에 동의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 이 그림은 순례 여행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고 폭풍이 닥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과 그의 일족처럼 그들을 인도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현실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기에서 숫자로 표현됩니다.

해석 방법과 이사야서의 복잡한 미래에 대한

Vannoy의 접근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더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없으므로 당연히 이사야서에서는 천년왕국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사야가 말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천년왕국을 보는 특정 해석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사야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사야가 미래를 내다보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미래에 대한 폭넓은 관점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약 시대와 다가오는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그는 종종 그 주제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는 망명 너머를 바라보며 고레스 밑에서 귀환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 너머를 내다보며,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고통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해졌으며 우리는 이 구절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구절에 이르면 그는 순례 여행 중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리킨다. 그 너머에 그는 천년왕국시대의 축복을 보고, 그 너머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상태의 축복을 본다. 보시다시피 이사야서에 묘사된 다양한 미래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가 이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책을 접할 때 해야 할 일은 특정 구절에서 해당 단계 중 어느 부분이 보이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모든 천년왕국 관련 언급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구절을 천년왕국의 맥락으로 강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천년왕국이나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구절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세대주의적 , 전천년적 관점을 통해 이와 같은 구절에 도달할 수 있고 “체계” 없이도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당신을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결정하세요 . 일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 밀레니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을 보면, 반면에 그들 중 일부는 천년왕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언급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도록 조심해야 하며, 내가 보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구속 프로그램과 그 성취의 모든 미래 단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접근하여 그 구절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이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여러 단계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순례 여행 중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천년왕국 시대의 축복, 영원한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섹션과 다음 시간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티 리치(Krysti Leach)
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초기 편집 Carly Geiman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